

필리핀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강명*	학번	
파견국가	필리핀	파견도시	마닐라
파견대학	라살아라네타대학	기간	2016. 12. 24(토) ~ 2017. 1. 21(토)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내가 파견한 대학은 라살아라네타 대학으로, 마닐라와는 조금 떨어진 위치의 말라본에 위치했다. 라살 대학은 캠퍼스가 많아서 마닐라에도 하나 있다고 한다. 학교는 잔디 운동장도 있고 작지는 않은 편이며 수업을 듣는 건물들이 조금씩 떨어져있다. 또한 대학교 안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같이 있어서 개학을 한 후부터는 학교에 사람이 꽉 찼었다.
수업	<p>수업은 하루에 8시간으로 일대일 수업 3시간, 소그룹 수업 2시간, 대그룹 2시간, 미디어 수업1시간을 듣는다. 수업은 레벨 테스트를 통해 정해진 단계별로 책이 달랐다.</p> <p>일대일 수업 : speaking 두 번과 writing 한 번을 수업하는데, 말하기 수업 1은 발음과 단어 공부를 도와주고 2는 주어진 책의 진도에 맞춰서 수업을 했다. 쓰기 수업도 책에 주어진 지문에 관해 쓰는 것이나 문법에 대해 공부했고 일주에 두 번 써야하는 에세이도 같이 봐주었다.</p> <p>소그룹 수업 : SGC는 총 6명에서 수업을 들었고 다른 학교 사람들과 함께 듣는 수업이었다. 어렵거나 했던 점은 거의 없었고 주로 게임이나 활동적인 것을 해서 재미있었고 주마다 수업 중에 한 번씩 있는데 스피킹테스트나 마지막 과제인 피피티발표, 현지인학생들 인터뷰 등은 크게 부담스럽지 않았다.</p> <p>대그룹 수업 : BGC는 두 개의 SGC가 모여 총 12명에서 수업을 들었다. 토익 스피킹과 리스닝 수업이었다.</p> <p>미디어 수업 : BGC에서 미디어 수업을 안 듣는 학교학생을 뺀 인원끼리의 수업이었고 광고와 관련된 수업이었다. 영상을 보고 어떤 광고인지를 맞추거나 광고문구를 직접 만들어 보거나 하는 수업이었다.</p>

Activity	첫 주는 민도르 섬을 금, 토, 일 갔고 그 후 주말은 팍상한 폭포와 따가이 화산섬을 선택해서 가는 방식이었다. 민도르 섬은 학교에서 지원을 해주었고 팍상한은 2000페소, 따가이따이는 1700페소였다.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겨울에 가서 인지 비도 별로 안 와서 습하거나 크게 덥지도 않았고 어디를 가나 에어컨이 있어서 괜찮았고 오히려 춥다고 느껴진 적이 많았다.
안전	가기 전에 걱정을 좀 했었는데 학교에서 정해진 규칙만 잘 따른다면 위험할 건 없는 것 같다.
숙소	학교기숙사(*) 홈스테이 () 외부 숙소() 기타() 새로운 기숙사를 배정받아서 2인 1실을 사용했고 룸메는 같은 학교 학생들이 중 무작위로 배정받았다. 3인실 기숙사보다는 좁았지만 훨씬 깔끔하고 엘리베이터도 있고 좋았다.
식사	학교식당(*) 홈스테이 () 외부식당 () 기타() 한식으로 급식같이 나왔으며, 공지된 식단표대로 음식이 나왔고 항상 맛있게 잘 챙겨먹었다.
교통	학교는 기숙사와 매우 가깝고 시장도 걸어간 만한 장소에 있고 주말에 마닐라 주변에 놀러갈 때면 우버택시를 불러서 사용했다. 물가가 저렴하다 보니 조금 먼 거리라도 편하고 안전하게 가는게 좋은 것 같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유학허가증(SSP), 여행자보험,기숙사보증금	699,000	출국 전 사전 납부
개인생활비(쇼핑,액티비티등)	550,000	환전
합계		

5. 출국 전 준비사항

짐을 많이 가져가면 돌아올 때 대부분 짐이 더 많아 지는데, 샴푸나 화장품같이 쓰고 버리고 오는 것이 아닌 이상 가서 한 달만 있다오기에 신발이나 가방을 너무 많이 가져갈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수건도 쓰고 버리고 올 생각으로 가져가면 좋을 것 같다. 또한 전자사전이나 영한사전, 노트북은 생각보다 쓸 일이 없었다. 특히 내가 쓰는 방은 와이파이가 안돼서 노트북을 쓸 일이 피피티 만들 때 빼고는 없었다. 그리고 한 달은 생각보다 짧기에 나는 따가이따이나 팍상한 폭포를 안가서 마닐라 시내를 이곳저곳 가보았지만 액티비티를 모두 참여한다면 주말에 시간이 더 없을 것 같다. 하여 가기 전에 가보고 싶은 곳에 대해 대중은 찾아보고 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맨투맨 수업에서 선생님들을 처음 만났을 때나 그쯤에 카톡이나 sns 아이디를 교환하여 교류하는 것도 좋은 것 같다. 매일 수업시간에 만나기도 하지만 연락을 쭉 하면 더욱 친밀감도 생기는 것 같고 한국에 와서도 연락이 이어지는 것 같다. 그리고 처음에 필리핀에 도착하여 유심칩을 갈아 끼우기데, 핸드폰 살 때 같이 들어있는 유심칩 빼는 도구랑 사용하던 유심칩 담아둘 수 있게 작은 지퍼백 가져가면 보관하기 편할 것 같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처음 어학연수를 신청하면서 한 달간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하고 와야지 하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필리핀 어학연수 프로그램의 취지 자체도 문화체험보다는 영어공부에 더욱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하였고 나도 한 달간 드라마틱하게 영어가 늘지는 않더라도 영어공부를 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했다. 확실히 아침 8시부터 5시30분까지 8시간동안 계속 영어로만 수업을 하고 학기 중에 학교를 다닐 때보다도 더 일찍 일어나야 했기에 아침잠이 많은 나로서는 일 교시 수업을 가는 게 제일 힘들게 느껴지기도 했다. 또한 단어 테스트, 스피킹 테스트 등 테스트들도 많았다. 테스트에 대한 큰 부담은 없었지만 에세이나 과제는 전 날 저녁에 조금 늦게 잠을 잘 수밖에 없게 되어서 조금 힘이 들기도 했다. 솔직히 가기 전에 둘러보았던 수기의 소감들처럼 한 달간 대단히 영어가 늘지는 않았다. 아마 대부분 그렇게 느낄 것 같다. 선생님들과 대화를 하는 것도 매끄럽게 문법을 완성한 문장보다는 단어와 단어로나 몸으로 설명을 하여 대화를 하는 편이 더 많기도 했다. 하지만 난생 처음으로 여러 외국인들과 오랫동안 영어로 대화해보고 발음도 연습해보며 자신감만큼은 많이 생긴 것 같다. 또한 영어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또한 수업 일수 만큼이나 생각보다 문화를 체험하고 필리핀을 둘러볼 수 있는 시간이 많았다. 대그룹 사람들과 함께 갔던 마닐라 투어 뿐 아니라 주말마다 학교 친구들과 마닐라 시내 여러 곳을 가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 다녀보면서 필리핀 사람들은 대부분 한국 사람들에게 우호적으로 대해 주고 항상 웃어주고 친절했던 기억들이 많다. 그래서 어학원 선생님들과도 연락하고 그림고 하지만 학교 가드인 알빈과 기숙사 밀 미니스톱 직원 제프랑도 친해져서 나중에 한국에 갈 때 선물을 주어서 더욱 아쉬웠다. 항상 좋은 시간들은 빨리 흘러가는 것 같다. 그 만큼 한 달이 정말 짧게 느껴졌고 그림고 아쉬운 부분들이 많은 것 같다. 또한 대그룹 사람들이나 가서 친해진 다른 학교 사람들과도 헤어져서 아쉽기도 했다. 한 달 동안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좋은 곳들도 많이 둘러보고 좋았던 기억들이 너무 많다보니 더욱 빠르게 지나간 것 같고 잘 기억도 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같이 다녀온 친구가 한 달 동안 꿈을 꾸

것 같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그 말이 맞는 것 같다. 집에 오는 드문드문 기억이 나는 게 아쉽고 그리운 마음이 확실히 있는 것 같다. 공부를 위한 목적으로 가기도 했지만 막상 가서보니 공부에 대한 목적을 많이 잃어졌던 것도 같다. 하지만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며 많은 좋은 경험이 된 것 같고 내 인생에 있어서도 잊지 못할 추억들과 사람들이 많이 남긴 것 같아서 너무 행복했던 한 달이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민도르섬- 순천향친구들이랑



마닐라투어- 대그룹사람들이랑



오션파크에서



smmall에서



대그룹사람들이랑



졸업식